

#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 춘강 한만춘 교수

박 상 희 | 연세대 정보대학원장

## I. 들어가는 말

전기전자공학은 공학분야 중에서는 역사가 매우 깊은 학문 중에 하나로, 초창기에는 주로 전력을 생산하여 필요한 산업시설과 수송기에 보내는 전기 에너지를 중심으로 다루는 분야와 전신, 유선 전화 등 일반적인 통신을 다루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학문적인 발전에 따라 오늘날에는 새로이 분류하고 있는 제어계측과 정보통신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 발전이 되어 왔다.

춘강(春崗) 한만춘(韓萬春) 교수는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전기전자공학계의 선각자로서 전기전자공학의 학문적 발전에 우뚝 서 있으면서 큰 족적을 남기었고, 공학교육, 과학기술 정책, 에너지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활약을 하였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춘강 선생이 생전에 남겨 놓은 많은 업적을 제한된 지면이지만 간략히 회고해 보고자 한다.

## II. 학문적인 성장 과정

춘강 한만춘 교수는 1921년 서울에서 상해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신간회 간사로 민족 독립운동에 진력하였고, 동아일보 창간 동인과 조선

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였으며,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애국지사 월봉(月峯) 한기약(韓基岳) 선생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를 거쳐 일제 말기에 한국인으로는 몇 안 되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1943년 전기공학과를 1회로 졸업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수재였다.

춘강 교수는 졸업과 동시에 조선전업주식회사(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였으며 발전과장, 기획과장을 역임하는 중에 해방을 맞았고, 우리나라의 낙후된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학술 및 기술의 향상 발전과 기술자 양성의 시급함을 직시하여 1948년에 교수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서 교수로 봉직하게 되면서 학문의 길을 시작하였다. 6. 25 동란 이후 1955년에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전기공학과로 부임한 후, 1959년 원자력 관련 국비장학생으로 유학 길에 올라 영국의 노팅엄 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원자로의 동특성에 관한 연구로 1961년에 공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아마도 '6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유일한 해외 박사로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면서 초대 공학부장, 초대 산업기술연구소장, 초대 전자계산소장, 이공대학

장, 산업대학원장 등을 두루 역임함으로써 오늘의 연세 공학 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춘강 한만춘 교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였지만 남에게는 너그러웠으며, 제자와 자식들을 행동으로 가르치는 등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또한 원칙과 정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합리적인 정신, 절약과 절제의 생활 태도는 평생동안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인 학자였고, 말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다. 특히 춘강 한만춘 교수는 일제 말기에 창씨 개명을 거부할 정도로 용기 또한 가졌다고 한다.

### Ⅲ. 학문적인 발자취

해방 이후 대학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분야에서 겪는 교재의 빈곤이었으며, 전기전자공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말로 출판된 교재는 전무한 상태로 주로 일본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간파한 춘강 한만춘 교수는 1955년 연세대학교에 부임한 후에 전기회로 시간의 교재로 R.H. Kerchner & G.F. Corcoran이 저작한 *Alternating Current Circuits*(제 2판)를 학부 교재로 강의하면서도 틈틈이 번역을 하여 1960년 6월에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교류회로』라는 이름으로 출판함으로써 우리나라 말로 된 교재를 처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춘강 교수는 전공 분야에 대한 대학의 교재로서 『배전공학』, 『송전공학』, 『발전공학』, 『자동제어이론』 등 다수를 계속 출간하여 후학들의 학문 연마에 큰 도움을 주었다.

춘강 한만춘 교수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연구는,

아마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던 영국 노팅엄 대학교 대학원으로 1959년 9월에 원자력 국비장학금으로 유학의 길에 오름으로써 본래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원자력 발전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으로 "A Study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Gas-cooled Graphite-moderated Thermal Reactors with Positive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s of Reactivity by Analogue Computer Techniques"를 제출하여 1961년 7월에 Ph.D를 취득하였다. 춘강 한만춘 교수는 귀국한 후에도 국내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였는데, "원자로 동특성에 관한 고찰"을 대한전기학회 논문을 통하여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연구 결과를 대한전기학회 논문지에 발표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 원자력 관련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세 101 아날로그 컴퓨터의 시험 제작'을 수년에 걸쳐서 마무리하였다. 완성한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 연구의 일환으로 전력 계통의 안정도 개선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는 한편, 제어공학에 관련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제어기의 개발 연구도 병행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활발하게 발표하였다.

춘강 한만춘 교수는 학구적인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대한전기학회에서는 총무이사·기획이사·편수이사·부회장·회장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학회에서 이룩한 업적과 봉사는 오늘의 대한전기학회가 국내 학회 중에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술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고한 위치와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크나 큰 초석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실 평가교수로서 에너지와 전력 정책에 관해 자문함으로써 크게 활약하였고,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기술위원장·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의 기

능인들이 기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일대 장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동력자원부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하여 초창기에 공업진흥청 표준심의회와 전기부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정책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집합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학계, 관계, 산업계에 봉사하고 기여한 공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와 같이 춘강 한만춘 교수는 전기전자공학자로서 국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공학계의 거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학문적 봉사업적을 토대로 당시 전기전자공학계에서는 처음으로 학술원 정회원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한만춘 교수는 교육자와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공적이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 동탑 산업훈장, 서울특별시 문화상도 수상하였다.

춘강 한만춘 교수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품성이 높았고 이루어 놓은 업적도 컸으며 지나온 행적이 아주 넓어서, 후학들이 교수의 회갑을 맞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동창회의 주최로 평소에 여러 매체를 통하여 기고하였던 전기전자공학에 관련한 다양한 글들을 모아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학문을 우리나라에서는 선두적으로 개척을 하였다는 뜻을 상징으로 나타낸 한만춘 수상집 『영광(榮光)의 징검다리』를 편찬하여 헌정 행사를, 아마도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는 당시까지 처음인 동시에 어느 모임보다도 성대하게 마련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춘강 교수는 회갑 이후에도 왕성하게 연구 활동에 매진하면서도 건강하였으나, 1984년 여름 갑작스럽게 학문적인 업적을 마감하지도 못하고 홀연히 가게 되어 후학들에게는 크나 큰 아쉬움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춘강 한만춘 교수는 다복한 가정에 2남 1녀를 두었고, 자제들이 모두 외국에서 훌륭한 연구업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현재 국내 대학에서 교직에 봉사하고 있으며, 학자 집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자부들도 모두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재원이라고 듣고 있다. 특히 큰아들 한민구 교수는 아버지의 학문 분야를 이어 받아서 현재 모교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후진 양성에 열정을 다하고 큰 연구업적을 계속 많이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각종 자문을 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무엇보다 전기전자공학 분야를 위해서는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

#### Ⅳ. 춘강 기념사업회

1985년에 춘강 한만춘 교수의 1주기를 맞이하여 후학들은 교수께서 남겨 놓은 학문적인 업적을 모아서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동창회의 주최로 『춘강 한만춘 교수 추념논문집』을 마련하여 영전에 바쳤으며, 다시 교수를 기리는 후학들이 모여서 '춘강 한만춘 교수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였다.

춘강 기념사업회는 한만춘 교수의 학문적인 승계 발전과 은사에 대한 흠모의 정을 되새기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각종 사업을 계획 논의하였으나, 사정상 일차적인 사업으로 '춘강 학술상'을 시상하기로 합의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춘강 학술상은 시상 대상을 국내외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에서 발행된 학술지 중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연구 업적 중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신진 연구자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정한 후 이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심사하여 1986년 6월에 제 1회 시상식을 가진 바 있다. 지금까지 학술상은 제 16

회를 거치는 동안 수상자가 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는 아마도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는 후학들이 하는 교수 추모 행사로는 그 예가 드문 것으로 기억되며, 이제는 나름대로 학술상의 권위와 그 위상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에 학술상 수상자들의 면모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준 교수를 비롯하여 대학교 교수직에 계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산업계에서도 큰 활약과 연구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춘강 기념사업회에서 바라고 있는 춘강 한만춘 교수의 학문적인 계승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춘강 한만춘 교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춘강 기념사업회에서는 춘강 교수가 생전에 이루어 놓은 업적을 다시 돌아보고 아울러 계속 해 온 기념사업의 활동을 간추려서 선생에 대한 연민의 뜻을 담아 보고자 『춘강 한만춘 교수님을 기리며』를 간행하였다. 이 책 속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와 이승원 명예교수는 춘강 선생을 회고하기를 “온화한 성품에 의한 판단력, 뛰어난 지성, 격의 없는 친화력, 민첩한 행동, 순리 순응, 생활 소신 등이 범인을 크게 능가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호서대학교 강석규 명예 총장은 춘강 선생을 회고하기를 “제주가 뛰어나고 성격이 급하였으나, 당시에 명지대학교에서의 강의와 대한전기학회 등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접촉에서 한번도 기분 나쁜 일이 없었다.”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편집 후기에는 “문득 뒤돌아보면 환희 웃고 계실 것 같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적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후학들이 아직도

춘강 한만춘 교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춘강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묘소의 비를 춘강 교수가 살아 있다면 팔순이 되는 해인 2001년에 세워 추모하기로 하고, 유족의 도움과 서에게에서는 널리 알려진 소현(紹軒) 정도준 선생(국전 서예부문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글씨로 비문을 완성하여 묘비 제막식을 춘강 학술상 시상식과 병행하여 성대히 가지기도 하였다.

## V. 맺는 말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 그 기반을 굳건히 한 춘강 한만춘 교수에 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다루어 보았으나, 필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만족스럽게 담지 못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양해를 바란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춘강 한만춘 교수의 가르침에 부응하게 전기전자공학 분야에 학문적인 큰 발전이 나타날 수 있게 더욱 연구에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여 본다. **박삼희**

### 박삼희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딴 다음, 박사 학위과정에서 생체제어 시스템을 전공하여 공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수도권과학기술진흥원(현 총인력개발원)에서 조교수를,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방문 연구 교수를, 그리고 대한의용생체공학회장과 대한전기학회장을, 연세대 교수평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교수 및 정보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저서로는 『생체전기현상』, 『생체신호처리 및 응용』, 『제어공학』 등 다수가 있으며, 특히 의용생체공학분야 관련 논문이 수 편 있다.